

광주시, 지역 유망 창업기업 ‘유니콘’ 육성한다

‘G-유니콘 육성경진대회’ 개최 아이메디텍 등 5개 기업 선정 사업화 자금·투자유치 등 지원 마케팅 등 글로벌 성장 뒷받침

광주광역시와 지역 유망 창업기업 5개사를 선정해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3일 오후 빛고를 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 2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 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우수한 기술 경

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 확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내로 광주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지점·연구소기업 등을 두고 있는 기업 중 누적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 기업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기업 26개사 중 혁신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창업기업 5개사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심층 심사(서류·현장)를 통해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경진대회 참여기업

26개사를 선정했고, 이후 경진대회를 열어 외부전문가, 시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G-유니콘 육성 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선정된 G-유니콘 육성 기업은 △아이메디텍 △베슬에이아이코리아 △바이오컴 △에스티에이지 △파인트코리아 등 5개사다.

대상을 수상한 ‘아이메디텍’은 중재시술용 나노섬유 지지체와 제조장치를 개발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베슬에이아이코리아’는 생생형 AI 개발·운영을 위해 AI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바이오컴’은 대사 이상·비만 솔루션 제공

을 위해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우수상을 수상한 ‘에스티에이지’는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촉진을 위한 고내구성 메조세공 탄소 담지체 기반 백금·합금 촉매 최적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파인트코리아’는 수요 맞춤형 의료용 생분해성 복합소재를 개발한다.

광주광역시는 이들 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세계(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국내외 전시회 참가, 투자 유치, 대기업과 개방형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해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금을 최소 1억원에

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억원, 최우수상은 1억5000만원, 우수상은 1억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지난해 1개국으로 한정했던 글로벌 POC(기술검증)를 다양화하기로 하고, 기업별 희망국가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광역시와 키우는 G-유니콘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들을 기반으로 지역 유망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삼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의약품·바이오 투자유치 잔결음

국제바이오산업전서 유치 활동

전라남도가 순천시·장흥군과 함께 2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5회 국제의약품·바이오 산업전’에 참가해 지역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적극 알리는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산업전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 투자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전남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세제 혜택 등 맞춤형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순천시는 승주읍에 위치한 ‘그린바이오 산업 전문단지’를 비롯한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집중 홍보하고, 친환경 바이오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인다.

장흥군은 ‘바이오식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바이오 식품산업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오지현 기자

우치동물원 “아기 물범 이름 지어주세요”

잔점박이물범 암컷 이름 공모 내달 5~6일 현장 투표로 결정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물범 이름 공모전을 오는 5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기 물범은 잔점박이물범 암컷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사육사의 손에 자랐다. 사육사가 직접 이유식을 먹이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치며 성장했고, 지금은 어미와 함께 살기 위해 합사적응훈련을 받고 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접수된 이름 가운데 3개 후보를 우선 선정한 뒤 5월5~6

일 연휴 기간에 우치동물원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름을 아기물범의 공식 이름으로 7일 확정·발표한다.

공모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이름 후보로 선정된 3인에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홍보물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치공원 동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장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아기 물범은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인기 동물”이라며 “이름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동물 간 교감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삼아 기자

광주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공청회 개최

29일 시청 무등홀…2차 계획 수립 시민·전문가 의견수렴·발전 논의

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제2차(2025년~2029년) 광주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청회는 체계적이고 광역적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과 함께 전문가·관계기관과 시행계획의 타당성·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제2차 광주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은 제2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년~2029년)과 제3차 환경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년~2032년), 제2차 국가미세먼지 종합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을 반영해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안)은 △제1차 광주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성과평가 △대기환경개선 목표·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계획 △연도별·분야별 배출량 전망·삭감 계획량 △대기모델링 예측 결과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 등이 제시됐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eppni128@korea.kr)과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는 광주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정삼아 기자



진도서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진도를 남동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희수 진도군수 등과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을 축하하는 시삽을

전남도 제공

하고 있다.

전남도, 섬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본격 추진

멘토링·국제섬 워크캠프 진행 “지속가능성·문화 가치 홍보”

전라남도는 섬 청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학교로 지정된 신안 도초고등학교에서 전라도 국제관계대사 특강을 시작으로, 섬 지역 학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진로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에 박철주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는 신안 도초고에서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외교관의 비밀수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지난 23일 진행했다.

특강에선 외교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섬 지역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시야 확장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는 ‘제6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신안, 완도, 여수 등 전남의 주요 섬 지역에서 펼쳐진다.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국제 봉사단체와 협력해 국내외 청년이 섬 주민과 교류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워크캠프는 지금까지 총 40개국, 393명의 국내외 청년이 참여해 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워크캠프는 7월 신안 섬에서 ‘세계적인 인물의 섬, 글로벌 인재와 세계시민’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완도 섬에

서는 8월8일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와 연계해 ‘섬과 치유의 섬’을 주제로, 여수 거문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섬 관광 실천’을 자원봉사여행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의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섬과 세계를 잇는 교류의 장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태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은 더 큰 세계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섬을 중심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내외 청년과 섬 주민이 지속해서 교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서 전남관광 매력 알린다

여수·목포 등 핫플레이스 팸투어 남도 문학기행·민간정원 등 홍보

전라남도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연계해 전남 관광 활성화와 관광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회 참가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관광 홍보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과 가족에게 주요 관광지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여 명을 대상으로 4개 권역

별로 출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한다. 팸투어는 당일 여행으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오동도, 담양 죽녹원, 장흥 우드랜드, 강진 가우도 등 권역별 주요 관광지가 대상이다.

주 경기장인 목포경기장에는 29개 부스를 설치해 문학기행, 민간정원, 가고 싶은 섬 등 테마형 관광지와 2025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대규모 이벤트를 홍보한다.

주 경기장 외에도 각 시군과 음악공연·

버스킹, 소규모 축제 등 이벤트 연계를 통해 선수단이 전남의 맛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심우정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들이 전남을 다시 찾고 싶도록 전남의 맛과 멋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전라남도의 ‘5월! 전남 방문의 달’ 프로모션도 함께 알려 5월이 전남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